

철학상담치료의 형이상학과 행위자 실천추론* **

한 우 진***

주제분류 철학상담, 형이상학**주요어** 철학상담, 철학치료, 철학상담치료, 심리상담, 논리기반치료, 행위자, 실천추론**요약문**

철학상담치료는 심리상담치료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다. 비지시성, 상호성, 그리고 비판적 성격이 철학상담치료의 고유한 특성으로 언급되곤 한다. 최근 두 상담치료에 대한 흥미로운 형이상학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적 인과를 형이상학적 가정으로 삼는 심리상담치료는 김재권의 배제논증에 취약하다. 하지만 철학상담치료의 일종인 논리상담치료(LBT)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추론을 변형시킨 연역추론에 의존하므로 배제논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역의 논리적 필연성이 철학상담치료의 정당한 형이상학적 기반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행위자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추론은 연역의 필연성을 넘어 행위에 대한 이유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동시에 철학의 다양한 전통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 실천추론은 심적 상태의 인과성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제논증의 회생양이 되지 않는다는 형이상학적 장점을 가진다. 아울러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철학상담치료의 방법론들뿐만 아니라 철학에서 절적인 부분을 차용해 온 여러 심리상담치료에도 형이상학적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유익한 조언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덕성여자대학교

1. 들어가며

철학상담치료가 국내에 소개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소모적인 정체성 논쟁도 있었으나, 이제 관련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철학상담치료는 다양한 여러 상담치료 모델 중 하나이다. 힐링이 대세를 이룬 현 세대에서 음악, 미술 치료 등과 함께 문학과 철학 같은 인문학의 계 분야도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보에티우스(1987)에게서 볼 수 있듯, 철학은 여러 사람에게, 특히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특성들을 검토하고 그 형이상학적 기반에 대해 탐구한 후, 행위자 실천추론에 바탕을 두는 제안을 할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작업이 현실에서 행해지는 프랙티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바로 맺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이상학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철학상담치료가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코헨(Cohen, E. D. 2005), 지나이크(Zinaich, S. 2006), 이영의(2012b) 등은 철학상담치료의 형이상학에 관한 흥미로운 논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철학의 중핵을 이루는 형이상학의 견지에서 조망하는 작업은 ‘철학하기’로서 철학상담치료의 철학적 정당화이기도 하다. 철학상담치료가 함축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를 고찰하여 정체성 확립과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2. 철학상담치료의 주요 특성들

철학상담치료를 명쾌하게 정의하는 일은 철학을 정의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몇 본질적 특징을 뽑아 다른 상담치료와 차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심리상담치료는 철학에서 여러 질적인 요소를 빌려 왔다. 다양한 철학적 전통에서 비롯한 철학상담치료의 방법 모두를 아우르는 본질적 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철학상담치료가 다른 상담치료와 크게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철학에 정체성을 둔 상담치료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면 그만이 아닐까? 철학사의 다양한 전통만큼이나 다양한 철학상담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심리치료의 일종인 실존치료(Existential Therapy)의 철학적 기반이 된 바 있는 실존주의는 철학상담치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CBT)의 근거가 되었던 논리학과 비판적, 반성적 사고는 논리기반치료(Logic-Based Therapy - LBT)와 같은 철학상담치료와 쉽게 연결된다. 게슈탈트 치료에 큰 영향을 주었던 현상학도 이에 바탕을 두는 상담치료로 이어진다. 해석학적 순환에 기반을 둔 상담치료 또한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다. 이렇듯 세상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통찰을 주는 철학의 분과라면 얼마든지 여러 상담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 더군다나 철학에 관심이 있으며 기존의 심리상담치료로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최근의 인문학 열풍이 이와 같은 세태를 반영한다.

단칼에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다양한 프랙티스 사이에 공통적인 본질도 존재하지 않기에 그저 가족유사성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철학상담치료의 특징은 ‘철학하기’에 있다고 흔히 말해진다. 내담자가 당면한 심리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철학적으로 사고함에 의해 철학상담치료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적 특성은 다소 막연하다. 그래서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비지시적(non-predicative) 특성이 종종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진남(2011a, 2013b)은 김옥진(2012)과의 논쟁을 통해 비지시성이 철학상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효과적인 개념이지만 본질을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심리상담 기법들이 검

사에 바탕을 둔 진단과 치료라는 심리치료 주류의 방법론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서 철학에서 질적인 내용을 차용하여 다른 심리치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옥진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심리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서 비지성의 단조를 발견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심리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라는 원리¹⁾는 비지시성을 약하게나마 암시한다. 이렇게 심리상담학자도 비지시성을 긍정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옥진의 말처럼 상담학은 비지시성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철학의 통찰과 사조들을 빌려 왔다. 이에 대해 철학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질적 요소들이 온전하게 심리상담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²⁾ 중요한 점은 김옥진과 이진남 모두가 비지시성의 관점에서 주류 심리치료의 한계점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 사이의 논쟁에서 부각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상호성이다. 아헨바흐(Achenbach, G. B.)의 ‘항해사 비유’는 많이 언급되어 왔다.³⁾ 그는 잘 알려져 있듯이 해석학에 기반을 둔 철학상담 모델을 제안했다.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에 일어나는 해석학적 순환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관계에 잘 투영된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치료하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과정, 즉 자신을 해석하는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하여 각자의 이해의 지평이 확대되는 체험은 상담이 무르익을수록 깊어갈 것이다.

상호성은 비지시성과 잘 연결된다. 심리상담치료에서 검사를 통해 내담자를 분석하고 정서행동 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진단절차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는 것을 궁극적인

1) 김옥진 (2012), 2420쪽.

2) 이진남 (2013b).

3) 한 좋은 예는 라베(2010), 102-103쪽.

목표로 삼는 심리상담치료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이기 쉽다. 물론 철학상담가도 철학적 지식이나 상담자라는 지위에 있어 내담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과 같은 일방적인 관계를 처음에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의 초점은 내담자의 문제와 이에 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과 세계를 검토하고 스스로의 철학적 반성을 유도하는 철학하기에 있으므로 철학상담은 기존의 어떠한 상담보다 본성상 더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심리상담치료에도 상호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심리상담치료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심리행동 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의 치료기법이 내담자에게 전이되면서 상담자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상호적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심리상담가들은 내담자의 파트너로서 내담자의 희망을 반영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⁴⁾ 또한 내담자들의 발전에서 보람을 느끼고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양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메타의사소통’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기도 한다.⁵⁾ 하지만 이러한 상호적 요소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를 상당 부분 전제하며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라는 관점을 본질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철학상담치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반성적, 메타적, 비판적 성격이다. 이는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차별점이기도 하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단매뉴얼에 의해 분석하고 재단하지 않고서 내담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철학상담치료의 과정 자체가 바로 이러한 철학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

4) 김옥진 (2012), 2420쪽.

5) Neenan, M., Dryden, W. (2010), 55쪽.

물론 심리상담치료도 유사한 특성을 일부 가진다. 파데스키(Padesky, C. A.)와 같은 심리학자는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CBT에 적용하고자 했다.⁶⁾ 상담자는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자신을 돌아보고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진다.⁷⁾ 『메논』에서 볼 수 있듯이, 산파술은 외부에서 가르침을 주기보다 대화 상대자 스스로가 안에서부터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파데스키는 이러한 산파술을 CBT에 적용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깨달으며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발견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은 내담자가 인지적으로 반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많이 닮아 있다.

그런데 철학상담치료는 산파술을 새삼스럽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 철학의 본성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반성적 사고에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용기, 경건함 등과 같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정의에 적용된다. 문답 과정에서 대화 상대자는 특정 윤리적 개념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 정의가 모순을 만나게 됨을 깨닫게 되며 결국 아포리아에 봉착하면서 대화는 끝난다. 『변론』 이래, 철학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반성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겨 왔다. 무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때 비로소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이데아를 지향할 수 있다.⁸⁾ 이렇듯 철학에서 산파술은 그저 인지적으로 구체적인 오류를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 왔으며 대화상대

6) Padesky, C. A. (1993).

7) Padesky, C. A. (1993), 4쪽.

8) 질문들의 사례는 Padesky, C. A. (1993). 2-3쪽 참고.

9) 산파술을 통해 도달하는 무지에 대한 깨달음은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선희(2013)는 소크라테스가 ‘끝내 무지자의 위치에 머물러서 자신의 역할을 묻는 자로서 시작하여 묻는 자로서 끝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17쪽). 자신의 역할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인식과 비지시적인 태도는 바람직한 상담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철학상담치료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세계관, 인간관, 윤리관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통해 그가 보다 근원적인 철학적 견해를 발견하고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철학에서 반성이나 비판적 사고, 메타적 사고는 단지 자신의 사고를 인지적으로 돌아본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며 가치평가와 규범성과 같은 의미를 강하게 가진다. CBT와 같은 심리상담치료는 심리행동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며, 이는 전형적인 인과적 접근이다. 그러나 철학상담치료는 규범적 접근을 취한다. 이진남은 철학상담치료의 규범성을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욕망을 구체적으로 표출되도록 한 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주목’하여 ‘욕구의 근원을 반성’하는 것에서 발견한다.¹⁰⁾ 이 과정에서 가치와 규범의 문제가 개입하게 된다. 그는 철학상담치료가 ‘반성적 혹은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기 때문에 왜곡된 욕망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적, 비판적 태도와 규범성을 연결한다.¹¹⁾ 같은 맥락에서 이진남(2011b)을 언급하는 박은미(2013)도 철학상담치료의 차별점으로 ‘주제에 있어서의 규범성’과 ‘방법에 있어서의 비판성’을 지적한다.¹²⁾ 박은미는 자신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게 하여 내담자가 ‘가치관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측면’을 철학상담의 특징으로 꼽는다.¹³⁾

철학상담치료의 규범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은 ‘논리와 심리의 차이’에서도 재발견 된다. 박은미는 “심리학은 인간의 인식의 경향성은 설명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식의 경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¹⁴⁾ 그녀는 ‘외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정상적인 생

10) 이진남 (2011b), 224쪽.

11) 이진남 (2011b), 225쪽.

12) 박은미 (2013), 137쪽.

13) 박은미 (2013), 138쪽.

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 패턴이나 인식의 경향성 때문에 고통을 겪는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식하고 자신의 생각의 패턴을 메타 차원에서 검토하여 조절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철학상담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¹⁵⁾

규범성은 윤리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기예보를 듣고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행위에 윤리적 평가가 개입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행위도 규범성을 전제한다. 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러한 행동을 야기했다는 인과적 설명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접하고서 자연법칙에 의해 기계적으로 우산을 들고 나가는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행위는 비 올 확률과 우산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질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비 올 확률이 60%라는 동일한 일기예보를 듣고도 누구는 우산을 갖고 나가지만 누구는 그냥 나간다. 중요한 것은 우산을 가지고 나가든 아니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단순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행위자 자신의 내적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철학상담치료의 주요 특징인 비지시성, 상호성, 비판적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속성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상담자와 함께 비지시적으로 상호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과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를 통해 인생관, 세계관의 규범적 평가와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전인적인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철학실천으로서의 철학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철학과 철학상담치료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형이상학적 기반과 연

14) 박은미 (2010), 424쪽.

15) 박은미 (2010), 426쪽.

결하기 위해 먼저 코헨의 논리기반치료(LBT)를 검토하겠다. 코헨은 LBT가 CBT의 일종인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Emotive Behavior Therapy - REBT)와는 다른 형이상학적 토대를 가진다고 보았다. LBT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서부터 철학상담치료의 형이상학적 기반이 찾아질 것이다.

3. REBT · LBT와 배제논증

심리상담치료는 심리학의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심적 인과, 즉 믿음과 욕구, 감정, 무의식, 잠재의식 등의 심리상태가 다른 심리상태나 행동에 인과적 효력을 미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철학상담치료가 근본적인 차별화를 원한다면 심리학과는 다른 형이상학적 가정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코헨(2005, 2006)의 LBT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20세기 중반 심리상담치료의 한 방법론으로 제기되었으며 코헨이 주목했던 REBT에 대해 살펴보자. 정신분석과 행동주의가 득세하던 1950년대에 엘리스(Ellis, A.)가 제안한 REBT는 개인의 감정, 믿음, 생각에 대한 인지적 성찰을 통해 치료를 유도하는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또는 CBT의 한 종류이다.¹⁶⁾ REBT는 이른바 ‘ABC 이론’을 통해 심리 문제를 설명한다.¹⁷⁾ ABC 이론은 어떤 역경이나 사건 A가 어떻게 비합리적인 믿음 B를 낳는지를, 그리고 B는 또 어떻게 정서적, 행동적 결과 C를 야기하는지를 분석한다. 비합리적 믿음이 드러나면, 이제 비합리의 인과 고리를 끊고서 합리적인 믿음을 형성하여 보다 건강한 심리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REBT의 목표이다.

16) Ellis, A., MacLaren, C. (2007), 21쪽.

17) Ellis, A., MacLaren, C. (2007), 20쪽.

교수 임용을 위한 공개 강의에서 매우 잘하기를 원하지만 강박적인 준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ABC 이론은 이 사람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A. 공개 강의를 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B. 훌륭한 강의를 하길 원한다는 합리적인 심리상태가 반드시 잘해야만 한다는 불합리적인 믿음을 야기한다.
- C. 불안한 정서가 강박적인 강의 준비를 야기한다.¹⁸⁾

이와 같은 과정은 앞서 언급한 심리학의 기본 가정인 심리상태의 인과를 전제한다. REBT는 외부 자극이 어떠한 믿음을 산출하며, 이어서 어떠한 정서로 이어지고, 이는 또 어떠한 행위를 낳는가에 주목한다. 이는 심리상태를 외부 자극과 이에 대한 행동 반응을 인과적으로 매개하는 내적 상태로서 이해하는 기능주의와 다를 바 없다. ABC 이론과 같은 모델은 상담가가 내담자의 심리행동상의 문제를 개념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며, 내담자도 이를 이용해 자신의 문제를 인지적으로 파악해 해결할 수 있다.¹⁹⁾

코헨은 엘리스의 REBT가 인지적 모델화 과정에서 형식 논리와 비형식적 오류들을 활용하는 논리기반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깨달았다.²⁰⁾ 그는 REBT, 즉 논리기반의 합리정서치료가 ‘신념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²¹⁾ 바로 여기서부터 자신의 LBT를 발전시켰다. REBT는 외부 자극에서부터 인과적으로 연결된 믿음의 비합리성에 주목하여 이를 인지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LBT도 바로 합리적이지 않은 믿음에 주목했다. 코헨은 심리행동적 문제들의 원인이 ‘비합리적 전

18) Yakura, J., Dryden, W. (2011), 89-91쪽.

19) Yakura, J., Dryden, W. (2011), 90-92쪽.

20) Cohen, E. D. (2013), 174쪽.

21) Cohen, E. D. (2013), 174-175쪽.

제들로부터 자기논박적이며 파괴적인 행위적, 감정적 결론들을 연역함'에 있다고 본다.²²⁾ 그렇다면 비합리적 전제들을 가지게 된 오류를 교정함에 의해 감정과 행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와 같은 추론과정에 주목하는 코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추론을 활용한다.²³⁾ 실천추론은 외부 사건에서 심리상태로의 인과(물심인과)나 심리상태와 다른 심리상태 사이의 인과(심심인과), 더 나아가 심리상태에서 외부 사건으로의 인과(심물인과)를 가정하지 않는다. 오늘 오후 늦게 비가 올 확률이 60%라는 일기예보를 듣고서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하고(물심인과), 이 믿음이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야기한다고 보는 것(심물인과)이 인과적 이해이다. 그런데 실천추론에는 인과관계의 법칙성이나 규칙성이 아니라 합리성이 개입한다. 실천추론에 대해서는 추론의 정당성이 평가되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당한 이유를 검토할 때, 우리는 그 행위가 바람직하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들이 과연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우리는 특히 주어진 외부 사건에 적용하는 내적 규칙의 합리성을 평가하여 합리적 추론을 유도한다.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낭패를 볼 것이므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는다면 우산을 가져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내적 원칙을 가진 사람이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서 우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여기에는 인과의 연쇄보다 주어진 정보와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개입한다.

LBT는 이와 같은 추론과정을 전건긍정의 형태로 정식화했다. 코헨(2005)에 의하면, 행위에 대한 실천 삼단추론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22) Cohen, E. D. (2005), 1쪽.

23) 이진남(2013a)은 코헨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추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규칙) 만일 그 사람이 지옥에 가 마땅하고 저주를 받을 만하다면,
나는 그를 죽이거나 추방되도록 해야 한다.

(보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 마땅하고 저주받을 만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죽이고 추방되도록 해야 한다.²⁴⁾

상담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의 목표는 내담자가 스스로 이러한 추론을 깨닫게 하고 전제, 특히 규칙에 담긴 오류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누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죽여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정당화되기 어려운 규칙이다. 내담자가 이와 같은 내적 규칙이 자신에게 정서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규칙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REBT의 ABC 이론에서 ‘합리적 믿음으로부터 비합리적 믿음이 야기되는 과정의 불합리성’을 ‘내적 규칙의 불합리성’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BT의 분명한 차별성은 REBT에서 볼 수 있었던 인과적 연쇄 대신 내적 규칙에 바탕을 둔 연역에 의존한다는 점에 있다.

이영의(2012a, 2012b)는 엘리스의 REBT와 코헨의 LBT에서 매우 흥미로운 형이상학적 쟁점을 찾아낸다. 믿음과 정서 같은 심리상태의 인과적 효력에 주목하는 REBT는 김재권(1996, 1998)의 배제논증을 피하기 어렵다.

배제논증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 무엇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인과력을 가져야 하므로, 특정 심리사건 M은 적어도 다른 심리사건 M*를 야기해야 한다(심심인과). 그런데 물리주의의 최소 요건으로서 ‘물리적인 것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수반에 의하면 모든 심리사건은 다른 물리사건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M*는 어느 물리사건 P*에 의해 충분하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M*에 대

24) Cohen, E. D. (2005), 5쪽.

해서 M뿐만 아니라 P*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과잉결정(Overdetermination)이 발생한다. 수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또 다른 충분한 원인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과잉결정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M*에 대한 두 개의 충분한 설명 중 하나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M의 인과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물 인과의 일종으로 M이 M*대신 물리적 기반인 P*를 야기하는 하향인과(Downward Causation)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하향인과는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성이라는 물리학의 기본 가정을 위반한다. 아울러 물리사건 P*는 (M을 결정하는) 다른 물리사건인 P에 의해 야기되었다(물물인과)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다시 과잉결정과 배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배제논증은 믿음과 욕구 등의 심리사건이 독자적 인과력을 가진다고 보았던 심리학의 기본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²⁵⁾

이영의는 심리상태를 외부 자극과 행동 반응 사이의 매개물로 간주하여 이들 사이의 인과연쇄를 분석하는 REBT가 배제논증에 직면한다고 보았다.²⁶⁾ 그렇다면 REBT의 형이상학적 기반은 위태로워진다. 반면에 LBT는 배제논증을 비켜갈 수 있다. LBT는 인과연쇄를 가정하지 않으며 이유와 설명의 정당성에 호소한다. 사실 논리적 추론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현상의 일종이다. 하지만 LBT가 주목하는 바는 사고나 추론의 인과적 효력이 아니다. 코헨은 행위를 연역적으로 추론해내는 과정에 주목했으며 연역추론에 적용되는 전제로서 행위자가 가지는 내적 규칙의 합리성에 관한 비판적 반성에 방점을 두었다.

합리성과 정당성에 기반을 둔 실천추론은 현대 형이상학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철학사의 여러 전통들은 사람의 행위와 믿음,

25) 배제논증에 대한 여러 반론들은 주로 과잉결정이 꼭 나쁜 것은 아니며 하나의 설명이나 인과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6) 이영의 (2012a), 162-163쪽.

욕구 등을 외부에서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인과연쇄에 국한하지 않고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해 왔다. 심적 인과에 기반을 둔 REBT와 결별하여 실천추론에 의한 LBT를 발전시킨 코헨은 철학상담치료의 독자적 기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영의(2012b)가 비판하듯, LBT의 형이상학은 빈약하다. REBT와 차별화되는 LBT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인과연쇄가 아닌 연역추론에 의한 합리성에 있다. 코헨은 “인간이 전제들로부터 감정의 인지행위적 요소를 논리적으로 연역한다”는 점을 LBT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거론한다.²⁷⁾ LBT에서 주어진 외부 사건을 내적 규칙에 적용하면 결론이 연역적으로 따라 나온다. 그런데 연역이 과연 완전하게 비인과적일까?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진다. 그런데 누군가 스위치를 내렸다. 그러면 불이 꺼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 확실성을 찾을 수 있지만 행위자의 합리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단순한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도 일종의 연역추론이다. LBT의 연역추론이 단지 인과관계에 관한 연역추론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 코헨은 아쉽게도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를 따지려면 연역추론의 전제가 가지는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연역만으로 철학상담치료의 정체성 확립에 충분한 비인과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험펠(Hempel, C. G.) 같은 논리경험주의자들은 과학의 설명에서 경험관찰뿐만 아니라 연역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기기도 했다. 결국 연역으로 과학적 설명이나 인과적 설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만족스럽다.

또한 일반적인 실천추론에는 연역에 의한 논리적 필연성뿐만 아니라 개연성을 따지는 귀납, 휴리스틱스, 실용주의, 확률적 계산, 합목적성의 추구,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반성적 평형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한다. 코헨이 주목하는 연역에 의한 논리적 필연성은 특정 형식의

27) Cohen, E. D. (2005), 1쪽.

삼단추론에 적용될 뿐이다. 실천추론의 중요한 부분은 외부 사건에 적용되는 내적 규칙의 합리성에 있을 것이다. 그는 내적 규칙의 합리성에 관한 11가지 오류 목록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덕목들을 제시한다. 이것이 연역의 합리성과 더불어 REBT의 비인과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REBT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도식적인 접근이 과연 실천추론의 다양한 부분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실천추론의 합리성을 주로 연역의 논리적 필연성에 한정시킨 결과, LBT는 이영의(2012b)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는 “삶의 문제들이 이성적으로 해명되고 반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런 반성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²⁸⁾ 대륙철학의 다양한 전통들은 논리적 판단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는 경향을 가지며, 의미의 문제는 도구적 합리성보다 합목적성이 더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물론 하나의 유효한 철학상담치료 기법인 LBT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판단이 반드시 논리적인 것이 아니며, 맥락에 따라 논리적 판단이 오히려 부적절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철학상담치료는 적절성과 합목적성, 규범성에 의한 정당화까지 고려할 때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이제 논리적 필연성을 넘어서는 철학상담치료가 인과모델에 기반을 둔 심리상담치료와 어떠한 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28) 이영의(2012b), 281쪽.

4. 행위자 실천추론

코헨의 이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LBT가 실천추론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와 밀접한 행위자 이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위자가 규범성, 합리성, 정당화 등 비인과적인 개념과 잘 연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행위자의 동기나 자유의지가 심적 상태의 일종으로 이해될 때에는 배제논증을 피하기 힘들다. 그래서 강한 결정론자(Hard Determinists) 등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자의 합리성에 대한 또 다른 논의들은 인간을 합리적 주체로 보는 행위자 실천추론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해는 철학상담치료를 필수적인 하나의 요청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비환원적인 합리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철학상담치료 또한 배제논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형이상학적 근거를 잃어버린다. 아울러 행위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내리거나 윤리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며, 인과를 넘어서 의미 차원의 풍부한 논의 또한 불가능하다.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 본 논문은 행위자의 주관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실천추론이 인과추론에 대해 가지는 차별성을 드러내었던 김재권(2006)에게 주목한다. 김재권은 네이글(Nagel, T., 1986)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네이글(1974)은 이미 의식의 주관성에 대한 논증으로 심리철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는 데카르트의 직관을 따라, 박쥐의 내적, 주관적인 초음파 경험을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적 비대칭성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여 의식의 독립성을 주장했다. 이후 네이글(1986)은 ‘내적, 주관적 관점’과 ‘외적, 객관적 관점’의 구분을 행위자와 자유의지의 문제에 적용한다. 그는 합리적 행위자에게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자율성에 대해 “자유로운 행위는 선행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의도적으로만, 즉 정당화하는 이유와 목적에 의해

서 완전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²⁹⁾ 여기에서는 행위자의 자율성이 이유와 목적에 의해 설명되어야 함이 강조되며, 자율성이 외적 관점이 아닌 행위자의 내적 관점에서 비롯한다는 점이 부각된다.³⁰⁾ 인과적 설명과 연결되는 외적 관점은 자율성과 거리가 멀다.³¹⁾ 심리학자는 피험자나 내담자의 행위를 객관적인 검사와 관찰을 통해 인과적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우리는 피험자나 내담자의 주관적 의도를 파악함에 의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김재권(2006)은 네이글의 논의를 따라서, ‘일인칭적(주관적, 내적) 관점’과 ‘삼인칭적(객관적, 외적) 관점’의 구분과 ‘행위자의 관점’과 ‘방관자(spectator)의 관점’을 병치시키고, 더 나아가 ‘규범적(평가적) 관점’과 ‘비규범적(기술적, 이론적) 관점’의 구분도 이에 연결한다.³²⁾ 이와 같은 구도를 통해 그는 행위자에 대한 규범성과 합리성이 행위자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비롯함을 강조한다.

행위를 설명하는 두 모델은 이와 같은 관점의 구분과 잘 어울린다. 험펠의 ‘연역법칙적(Deductive-Nomological) 설명모델’(D-N 모델)은 행위를 자연법칙의 규칙성에 의해 설명한다.³³⁾ 이때 인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인과관계에 바탕을 두며, 이는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과 별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행위 설명모델은 REBT 등의 심리상담치료가 가지는 기본 가정과도 일치한다. 반면에 또 다른 전통은 자연법칙에 기반을 둔 인과적 설명이 행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람들의 행위는 이유의 합리성과 적절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이 바로 ‘합리적 설명(rational explanation)’이다.³⁴⁾ 행위의 이유에 대한 합리

29) Nagel, T. (1986), 115쪽.

30) Nagel, T. (1986), 113-116쪽.

31) Nagel, T. (1986), 115쪽.

32) 김재권(2006), 6쪽.

33) 김재권 (2006), 7-8쪽.

적 설명은 D-N 설명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³⁵⁾ 같은 설명이라도 피설명항과 설명항 사이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다른 이해가 가능하다. D-N 모델에 의하면, ‘설명항은 피설명항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설명항을 설명’하며 ‘인과관계는 설명적 이해의 원천이다.’³⁶⁾ 그러나 합리적 설명에서 설명항은 어떤 행위의 적절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된다. 이상의 행위자 설명모델의 구분을 관점의 구분에 적용해보자. 김재권은 실천추론의 규범적 적절성을 평가할 때 ‘누구의 견지에서 “적절한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³⁷⁾ 행위자의 ‘실천적 숙고’(practical deliberation)는 본질적으로 일인칭적이다.³⁸⁾ 일인칭 관점의 특수성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논증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³⁹⁾ 다른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는 결코 나에게 그 사람의 존재를 보장하지 못한다. 시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불러온다.

(가)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는 비를 맞게 될 것이다.

나는 비를 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가겠다(shall) (가려고 한다(intend

34) 김재권 (2006), 8-9쪽.

35) 네이글(1986)은 내적 이유에 의한 설명이 규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이유가 특정 행동으로 연결되는 필연성이 없음을 언급하며 합리적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어느 설명이 더 이론적으로 우수하느냐를 따지지 않고서 단지 합리적 설명과 D-N 설명 사이의 구분에 주목하여 이를 철학상담치료와 심리상담치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36) 김재권(2006), 18쪽.

37) 김재권(2006), 13쪽.

38) 김재권(2006), 20쪽.

39) 김재권(2006), 22쪽.

to), 가게 될 것이다(is going to)).⁴⁰⁾

여기서 ‘나’에 ‘피터’와 같은 제3자의 이름을 곧장 대입하면 매우 어색하며 그의 믿음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가)를 변형해 본다.

(나) 피터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비를 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는 우산을 가지고 가겠다(shall) (가려고 한다(intend to), 가게 될 것이다(is going to)).⁴¹⁾

김재권에 의하면, (나)의 추론은 기껏해야 피터의 행위에 대한 관찰자의 ‘예측적인 이론적 추론’이므로 피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의 실천 추론을 할 수가 없다.⁴²⁾ 다른 사람의 행위와 심리상태에 대한 예측은 객관적이고 간접적인 관찰에 의존하며 일종의 인과관계에 의한 예측이 된다. 다른 사람이 이미 행한 행위를 설명할 때는 그의 심리상태를 추론하여 인과관계를 찾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설명모델이 바로 D-N 모델이다. 그러나 나의 행위를 나에게, 또는 피터가 자신의 행동을 자신에게 법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의 행위에 의미와 정당화를 부여하는 행위는 객관적 설명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를 요구하며,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자신이 파악(grasp)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⁴³⁾ 내가 물 마시러 갈 때 왜 물을 마시러 가는지에 대한 자기이해가 없다면, 나의 행위는 아무런

40) 김재권(2006), 24쪽.

41) 김재권(2006), 25쪽.

42) 김재권(2006), 26쪽.

43) 김재권(2006), 20쪽.

의미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⁴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행위자 실천추론은 한 개인의 내적 믿음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규범적이며 D-N 모델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인칭적 실천추론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행위자인 추론 당사자의 자기이해에 바탕을 둔 실천적 숙고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합리적 설명은 객관적인 과학적 설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인칭적 실천추론은 나의 믿음과 욕구를 대상으로 삼지만 인과적 관계에 의한 추론이 아니다. 나의 믿음이나 피터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시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김재권의 핵심 주장이다.

5. 행위자 실천추론의 장점

인과추론과 행위자 실천추론의 차이는 심리상담치료, 특히 REBT와 같은 CBT와 철학상담치료의 차이에 그대로 투영된다. 심적 인과에 기반을 두는 심리상담치료와 비교할 때, 행위자 이론에 바탕을 두는 철학상담치료는 형이상학적으로 유리하다. 심적 인과를 벗어나면서 철학상담치료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보다 질적인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행위자 실천추론의 자기이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의 본질에 닿아 있다. 앞서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심리상담치료인 CBT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에 인지적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CBT는 문답법의 형식을 빌려 왔지만 상담 주제면에서의 규범성과 산파술에 의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비판적 사고의 규범성을 담아내지 못한다. 실천추론에서 이유의 정당화를 통해 REBT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LBT도 형이상학적으로 빈약하며 합리성

44) 김재권(2006), 26쪽.

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연역추론에 그쳐서 실천추론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다. LBT에서 연역추론의 전제에 해당했던 내적 규칙도 내용이 경직되어 있다. 결국 행위자 실천추론 모델처럼 내담자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근본적인 일인칭적 성찰을 유도하는 철학상담치료가 산과술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다고 할 수 있겠다. 행위자인 내담자가 주관성에 바탕을 둔 자기이해를 통해 규범적 반성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철학상담치료의 본 모습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상담자는 자신도 무지하다는 전제하에서 비지시적 태도를 통해 내담자와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내담자가 규범적인 자기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심리상담치료와 비교할 때, 행위자 실천추론의 두드러지는 장점은 형이상학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심리상태를 인과적 네트워크 내에서 이해하는 한, 우리는 이미 19세기 말 심리학에서 논의된 바 있는 배제논증을 극복하기 어렵다. 제임스(James, W.)가 우려했듯이, 배제논증은 심적 속성의 인과적 효력을 빼앗게 되는데 이는 심리학자들이 볼 때 ‘순전히 선험적이고 유사형이상학적인 기반’위에 서 있는 것으로서 ‘보장될 수 없는 불합리’이다.⁴⁵⁾ 이렇듯 심리학에서 믿음과 욕구는 인과력을 가진다고 가정된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욕구의 내용도 인과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내가 ‘내일 비가 올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내일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믿음을 형성했다면, 비가 올 것이라는 사태와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나뉘는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자기방어기제나 무의식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동하여 나의 생각과 행위에 인과적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심적 인과를 전제하지 않으면 심리행동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도 난망한 일이다.

오래 전 제임스가 우려했던 문제는 1980-90년대 인지과학과 심리철학

45) James, W. (1983), 141쪽.

에서 벌어졌던 심리학의 독자성에 대한 논란에서 다시 등장했다. 여러 신경과학자들은 믿음과 욕구를 다루는 심리학이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신경과학으로 환원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권의 배제논증은 이러한 견해에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했다. 학문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심리학은 심리상태의 인과적 효력을 사수해야 하지만, 배제논증은 매우 단순하고 강력한 직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논증의 각 단계를 비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행위자의 합리성에 형이상학적 기반을 두는 철학상담치료가 배제논증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 또는 철학상담치료가 신경과학을 멀리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심리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이를 부인할 필요도 없다. 단지 제거론에 관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 그만이다. 행위자로서 나의 내적 상태는 인과와 상관이 없으므로 굳이 심성의 독자성 문제에 있어서 한 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느 사람의 민간 심리학(Folk Psychology), 즉 믿음과 욕구로 이루어진 이론 체계를 이해함에 의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 이론’(Theory Theory)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단지 내 안에서 모사해 봄으로써 이해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이 가지는 장점과 유사하다. 민간 심리학의 인과적 관계망에 의해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 이론은 전형적인 기능주의 이론으로서 심리학의 주류 견해이다. 감정이나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아에게 마음 이론을 인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주요 치료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초기 시뮬레이션 이론가들인 고든(Gordon, R.)과 골드만(Goldman, A. I.) 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지 다른 사람의 신발 속에 들어가 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기만 하면 되므로, 믿음과 욕구로 이루어진 인과적 관계망으로서 심리이론이 가정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물레이션 이론은 심리학의 독자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가며 배제논증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론 이론에 비해 형이상학적으로 덜 불안하다. 마찬가지로 심리상태의 인과적 효력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는 철학상담치료는 심리상담치료에 비해 형이상학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심리상담치료와 철학상담치료의 차이는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두 이론의 대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⁴⁶⁾ 심리상담치료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마음 이론을 적용하여 주로 인지적인 치료를 유도한다. 상담자는 제3자의 관점에서 마음 이론의 인지적 학습이나 교정이 어떠한 치료효과를 내는지를 예측하고 관찰한다. 여기에는 인과추론과 D-N 모델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가 비지시적으로 내담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철학상담치료에는 인지 모델인 이론 이론보다 공감 모델인 시물레이션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시물레이션은 상담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담자의 마음을 모사한다는 측면에서 일인칭적 접근이다. 뿐만 아니라 시물레이션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특정 마음 이론을 가지고 있거나 결여하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대로 받아들여 공감을 하면 충분하다. 결국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 이론에 대한 인과적 예측이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철학하기로서 철학상담치료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인지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을 함축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반성에 요구되는 것은 일인칭적 행위자 실천추론의 합리성이므로 굳이 믿음과 욕구의 인과적 관계망으로서 마음 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행위자의 합리성에 근거한 실천추론은 다양한 심리상담치료나 LBT보다 철학상담치료의 핵심 특징들을 더 잘 반영하며 현재 행해지

46) 이론 이론과 시물레이션에 대한 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두 이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철학상담치료의 인식론에 관한 작업이 필요하다.

는 다양한 프랙티스에 적용되어 형이상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위자 실천추론의 핵심은 자기이해와 실천적 숙고에 있다. 행위자 실천추론은 인과적 접근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논리학에 의존할 필요도 없다. 오직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적절함을 따지는 정당화, 합리성, 규범성을 요구할 뿐이다.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마주하며 얻게 되는 자기이해와 더불어 이유의 적절함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실천적 숙고는 바로 진정한 ‘철학하기’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자 실천추론은 연역추론이나 도구적 이성예의 호소를 넘어서 철학의 다양한 요소들에 적용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 실천추론은 행위자를 실천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는 칸트(Kant, I.)와도 쉽게 연결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고민을 스스로 돌아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를 일깨우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실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윤리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내담자가 어떤 선택지가 자신의 총체적 신념체계와 일치하는지’를 숙고하게 하여 ‘결정마비를 완화하도록 돕는’ 윤리상담이 이러한 부류의 철학상담치료라고 할 수 있겠다.⁴⁷⁾ 행위자 실천추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행위자의 실천적 숙고는 소피스트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 비코(Vico, G.)로 이어지는 수사학의 전통과도 어울린다. 도구적 이성과 구분되는 실천적 지혜는 REBT나 LBT와 같이 인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보다 행위자 실천추론에 친화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심리행동치료의 틀 안에서 철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심리상담치료사보다 이러한 전통에

47) Marrinoff, L. (2013), 252쪽.

익숙한 철학상담치료사가 보다 능숙하게 행위자 실천추론을 활용할 수 있다. 파데스키(199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효과적인 심리상담치료의 방법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인지치료의 틀을 넘어서 수사학의 전통을 적극 활용하면, 내담자의 개별 특성에 보다 주목하는 질적인 상담치료의 방법론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 실천추론은 LBT와 양립하기 어려운 대륙철학의 다양한 전통에도 열려 있다. 내담자의 심리행동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도모하는 철학상담치료는 삶의 의미와 지평을 논의하는 대륙철학의 사조들을 활용할 수 있다. 행위자 실천추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삶과 세상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철학에서 큰 영향을 받고서 질적인 치료를 도모하는 심리상담치료에도 적용가능하다. 정신분석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실존치료도 이와 같은 철학적 전통을 잘 활용하고 있다. 내담자가 자신이 세계 속의 고독한 존재임을 깨닫고 실존적 책임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존치료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에 기여하는 중이다. 그 외에도, 내담자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로저스(Rogers, C.)의 인간중심치료(Person-Centered Therapy) 등도 질적인 것과 의미를 중시하는 철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행위자 실천추론은 정신분석이나 치료적, 지시적 관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한 여러 심리상담치료에서도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윤리적, 실존적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심리상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존재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철학상담치료가 행위자 실천추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철학의 전통을 활용하여 철학상담치료가 개발해 온 여러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물론 행위자 실천추론이 모든 프랙티스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아마도 분석철학적

전통을 따르거나 합리성을 중요시 하는 상담치료에는 친화적이지만, 합리성 자체를 부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방법론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건강심리학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양 전통의 명상, 비움, 내려놓기 등의 치료에는 또 다른 접근이나 행위자 실천추론의 재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⁴⁸⁾ 그래도 본 연구가 주목했던, 특히 기존의 인지적인 상담치료가 채용하는 인과추론이나 연역추론에 비해 행위자 실천추론이 질적인 영역에 열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철학상담치료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므로, 다양한 상담치료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결론

철학상담치료에 임하는 상담자와 내담자는 모두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행위자이다. 행위자의 합리성은 심리상담치료의 인과적 접근을 넘어서 그 이상의 철학적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치료와 친화성을 가진다. 물론 연역추론, 행위자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요구하는 자기이해, 더 나아가 철학적 사고 일반도 결국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심리현상이다. 따라서 심리상담치료에서도 철학의 여러 요소들이 활용될 수 있다. 실존치료, 로고테라피, 인간중심치료, REBT와 CBT 등이 그 사례이다. 그 중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REBT와 CBT는 자신의 심리상태나 믿음 등을 돌아보고 논리적 오류의 원인을 인지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심적 상태의 인과적 역할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심리현상을 인과모델에 의해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배제논증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

48) 어느 익명의 심사자는 행위자 실천추론이 동양 철학에 잘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 그래서 코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추론을 활용하는 LBT를 통해 인과성에 바탕을 둔 심리상담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LBT 역시 한계를 가지며, 보다 안정적인 형이상학적 기반을 통해 철학의 여러 보화를 활용할 수 있는 상담치료 모델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행위자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상담치료의 방법론이 주어진다면 철학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반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원론적 논의가 과연 실제 프렉티스에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할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겠다. 또한 한 익명의 심사자의 지적처럼, 형이상학적 문제 이전에 철학상담을 통해 수행되는 철학적 작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론이든 형이상학적 기반을 필요로 할 것이며, 행위자 실천추론은 인과성을 전제하지 않는 철학적 대화와 사고, 추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본 연구가 검토한 형이상학적 문제들과 아울러 철학상담치료의 인식적 기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양자 모두가 어떠한 자기이해에 도달할지도 아주 흥미로운 문제이다. 양자의 상호이해는 결국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어떻게 규범적인 메타적 지식, 즉 자기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이해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적 기반의 문제는 중요한 토의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형이상학적, 그리고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철학상담치료의 철학적 근거가 확고하게 다져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선희 (2013). 「철학 프락시스를 통한 철학교육과 철학치료 방법론 연구」, 『동서철학연구』 69호.
- 김옥진 (2012). 「심리상담과 철학상담: 오해와 딜레마」, 『상담학연구』 13권 5호.
- 김재권 (2006). 「행위에 대한 이해」, 『철학사상』 23호.
- 라베 (김수배 역) (2010). 『철학상담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 박은미 (2010). 「철학상담의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적 사고 교육 - 그 적용방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1권 3호.
- 박은미 (2013). 「철학실천으로서의 철학상담」, 『시대와 철학』 24권 4호.
- 보에티우스 (정희채 역) (1987). 『철학의 위안』, 성바오로출판사.
- 이영의 (2012a). 「논리중심치료의 철학치료적 성격」, 『범한철학』 65집.
- 이영의 (2012b). 「논리기반치료의 형이상학」, 『범한철학』 67집.
- 이진남 (2011a). 「철학상담과 심리상담」, 『철학논집』 26집.
- 이진남 (2011b). 「왜곡된 욕망과 정신건강 - 치료제로서의 심리상담과 철학상담-」, 『철학연구』 44집.
- 이진남 (2013a). 「코헨의 논리기반치료에 대한 검토」, 『인문과학연구논총』 34권 1호.
- 이진남 (2013b). 「철학상담의 정체성과 심리상담의 오해」, 『철학논집』 34집.
- 코헨 (김우열 역) (2006). 『미친 시대를 이성적으로 사는 방법 -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어떻게 할까?』, 21세기북스.
- Achenbach, G. B. 「철학, 철학실천, 그리고 심리치료」, Lahav, R., Tillmanns, M. V. 편저 (정재원 역) (2013).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시그마프레스.
- Cohen, E. D. 「철학상담: 비판적 사고의 역할」, Lahav, R., Tillmanns, M. V. 편저 (정재원 역) (2013).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시그마프레스.
- Ellis, A., McLaren, C. (서수균, 김윤희 역) (2007).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학지사.

Lahav, R. 「철학상담의 개념 구조틀: 세계관 해석」. Lahav, R., Tillmanns, M. V. 편저 (정재원 역) (2013).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시그마프레스.

Marinoff, L. 「윤리상담의 출현: 고려사항과 두 사례연구」. Lahav, R., Tillmanns, M. V. 편저 (정재원 옮김) (2013). 『철학상담의 이해와 실천』. 시그마프레스.

Neenan, M., Dryden, W. (이종호 등 역) (2011) 『인지치료에 대해 알고 싶은 100가지』. 학지사.

Yankura, J., Dryden, W. (이동귀 역) (2011). 『앨버트 엘리스: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의 창시자』. 학지사.

Cohen, E. (2005). "The Metaphysics of Logic-Based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Practice* 3:1.

James, W. (1983).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Kim, Jaegwon (1996). *Philosophy of Mind*. Westview.

Kim, Jaegwon (1998). *Mind in a Physical World*. The MIT Press.

Nagel, T. (1974). "What Is It Like to Be a Bat?" *The Philosophical Review* 83:4.

Nagel, T. (1986). *The View from Nowhere*. Oxford University Press.

Padesky, C. A. (1993). "Socratic Questioning: Changing Minds or Guiding Discovery". A Keynote Address Delivered at the European Congress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24.

Zinaich, S. (2006). "Elliot D. Cohen on the Metaphysics of Logical-Based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Practice* 2:4.

Metaphysic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Agent's Practical Reasoning

Han, Woojin (Duksung Women's Univ.)

Philosophical counseling has established its identity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psychological counseling. Non-directiveness, reciprocity, and critical thinking have been mentioned as inherent propertie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Recently, an interesting metaphysical problem about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was raised. Psychological counseling, which supposes mental causation as its metaphysical assumption, is vulnerable to Kim's exclusion argument. However, Logic-Based Therapy, a sort of philosophical therapy, can dodge the exclusion argument, since it does not appeal to mental causation but employs deductive reasoning which goes back to Aristotle's practical reasoning. Nevertheless, logical necessity found in deductive reasoning is insufficient to provide a legitimate metaphysical ground for philosophical counseling. Practical reasoning guaranteeing agent's rationality should be able to evaluate appropriateness of reasons for actions beyond just logical necessity in deductive reasoning. It can also utilize varied traditions of philosophy. Agent's practical reasoning has its metaphysical strength in that it is not vulnerable to the exclusion argument, since it does not necessarily suppose mental causation. Agent's practical reasoning presents justification not only for diverse practices of philosophical counseling but also for kind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hich have borrowed qualitative elements from philosophy.

철학상담치료의 형이상학과 행위자 실천추론 / 한우진

Key words: Philosophical Counseling, Philosophical Therapy, Psychological Counseling, Logic-Based Therapy, Agent, Practical Reasoning

한우진 E-mail: whan@duksung.ac.kr

투 고 일	2015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5년 04월 25일
게재 확정	2015년 05월 15일